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6권 제3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0.16.03.099 2020, Vol. 16, No. 3, pp. 99-117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Maternal Limit-Setting and Overprotective/Permissive Parenting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김재희[1]

Jaehee Kim[1]

ABSTRACT

Objective: Studies have revealed that parenting is a crucial factor fo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behaviors, however, less is known about the underlying mechanism that may be moderated by maternal depress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tes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i.e. limit setting, overprotective/permissive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Methods: Three hundred and one mothers with 4 to 6 years old children reporte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pression, thei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Result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effortful control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and maternal depression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s well a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ere stronger among mothers with lower levels of depress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and when maternal limit setting and overprotective/permissive parenting impact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efforts to provide the parenting intervention take a target specific approach (e.g. considering mother's depression symptom), o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o ultimately facilitate children's positive adjustment.

key words parenting, maternal depression, effortful control, externalizing behaviors, moderated mediation

[1] **제1저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e-mail : jaehee7750@hanmail.net)

Ⅰ. 서 론

초등학교 입학 이전 유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격적인 행동과 주의집중문제 등의 외현화된 행동은 이후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방해하고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여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의 정상발달 궤적을 일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다(Eisenberg et al., 2009). 아동의 적응 여부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는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서조절의 핵심능력인 의도적 통제이다(Lengua, 2002).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는 예측요인과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어떤지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을 돕는 방안일 것이다(Posner & Rothbart, 2005).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은 의도적 통제능력과 외현화 행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는데(Lengua, Honorado, & Bush, 2007; Olson, Bates, Sandy, & Schilling, 2002), 주로 온정, 반응성, 논리적 설명, 강압, 거부, 방임 등의 양육행동에 초점이 되어 연구되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Olson et al., 2002).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나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이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연구에서만 조사된 실정이다(김효정, 이희선, 2015; 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 2019; 우애리, 2014).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동 등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주로 초점이 된 제한된 양육행동(예: 온정, 강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한계설정이나 과보호 행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조사된 특정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 세분화된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며 부족한 이론적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 특성을 보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온정성과 정서적 지지가 지나쳐 유아들을 과보호하거나 허용해버리는 행동이 증가하여 캥거루 맘, 헬리콥터 맘 등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는 부모를 칭하는 용어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이용화 등, 2014). 즉,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주거나 간섭하여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지나친 애정을 보이며 자녀와 분리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부모 유형이다(이용화 등, 2014). 이렇듯, 과보호/허용 수준이 높고, 가정 내 한계설정이 없는 비일관적인 양육환경은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김효정, 이희선, 2015; 우애리, 201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관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행동의 규범을 제공하여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을 늘리고, 과보호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줄이는 것이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또래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준비해야 하는 유아기에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고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줄이는 의미있는 방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10 - 42% 정도가 우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녀가 11 - 42개월 때 우울 증후를 경험한 어머니 중 82.4%가 자녀가 유아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orwitz, Briggs-Gowan, Storfer-Isser, & Carter, 2009). 이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rwitz et al., 2009).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쉽게 사라지기 힘

들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접 요인으로 어머니의 우울 자체가 가정의 분위기나 양육행동의 질을 좌우하는 위험 맥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조사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중 특히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기술을 중재할 때 자녀의 외현화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Gardner, Hutchings, Bywater, & Whitaker, 2010).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머니의 우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울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달라져 특정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촉진하거나 방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는 본 연구가 자녀의 외현화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우울증상을 가진 취약한 어머니 대상일 때 적절한 교육대상 특수적인 중재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도적 통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Karreman, Tuijl, Aken, & Dekoviç, 2009; Valiente et al., 2003; Zhou et al., 2007). 89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3세 유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는 4 - 5세 유아가 외현화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rreman el., 2009).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온정성과 강압 등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현화 행동 간의 관계를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Gartstein, & Fagot, 2003; Smith & Day, 2017).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순응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일관적으로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돕는다(Lengua et al.,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김효정, 이희선, 2015)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 능력 중 특히 억제 조절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인 태도로 규칙을 제공하고 자녀가 제한 내에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양육은 유아의 내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우애리, 2014; Lengua et al., 2007). 반면에, 자녀의 행동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의 울거나 떼쓰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제지하는 것을 회피하며 그대로 허용하거나 혹은 부정적 표현을 사전에 막기 위해 원하는 바를 해주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는 자녀가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학습할 기회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Grolnick, & Farkas, 2008). 또한,

자녀의 요구를 통제 없이 들어주고 훈육하지 않거나 자녀를 제한 없이 대하는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은 유아기 자녀의 외현화 행동을 예측한다(Aunola, & Nurmi, 2005; Rinaldi, & Howe, 2012).

Middleton, Scott 그리고 Renk(2009)가 부모의 우울,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어머니가 한계설정 양육을 하면 유아가 외현화 행동을 덜 하도록 완충 역할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자녀는 심리적인 결핍과 외현화 행동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우울증상이 없는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해 약 3 - 4배 높은 비율의 외현화 행동 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미경, 김영희, 2003; Cummings & Davis, 1999; Cummings, Keller, & Davis, 2005; Elgar, McGrath, Waschbusch, Stewart, & Curtis, 2004). 우울한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비지지적이고 짜증을 잘 내며 적대적이고,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덜 온정적이고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숙, 오현숙, 2015; Chronis et al., 2007; Cummings & Davis, 1999; Elgar et al., 2004; Middleton et al., 2009).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우울이 부모양육의 질을 좌우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관계에 초점이 되어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Downey & Coyne, 1990; Elgar et al., 2004; Gartstein & Fagot, 2003). 전반적으로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대화를 덜 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거나 천천히 반응하며 적절한 한계설정을 하지 못하며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개입을 덜 하는 등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주연 등, 2019; Downey & Coyne, 1990;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어머니의 우울은 침울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우울감을 전이하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어머니의 우울은 긍정적인 양육을 하더라도 자녀가 정서조절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정적인 양육을 하면 자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현화 행동을 유발하는 등의 양상으로 가정맥락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이나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며 어머니의 우울이 가정환경의 위험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Carter, Carrity-Rokous, Chazan-Cohen, Little, & Briggs-Gowen, 2001; Hoffman, Crnic, & Baker, 2006; Middleton et al., 2009). 어머니의 우울을 조절변인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우울할 때 어머니의 비난적인 정서표현과 자녀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어머니의 행동과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Mellick, Sharp, & Wilkinson, 2017). 또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우울한 어머니들 사이에서만 어머니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opham et al., 2010). 이렇듯,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맥락에서 존재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스스로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에 의한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발달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우울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문경주, 오경자, 1995; Topham, et al., 2010).

고찰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일관적으로 규칙을 제공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지나친 애정으로 자녀가 원하는 바를 아무런 통제 없이 하도록 허용하거나 과잉으로 보호하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는 영향을 미친다. 이때,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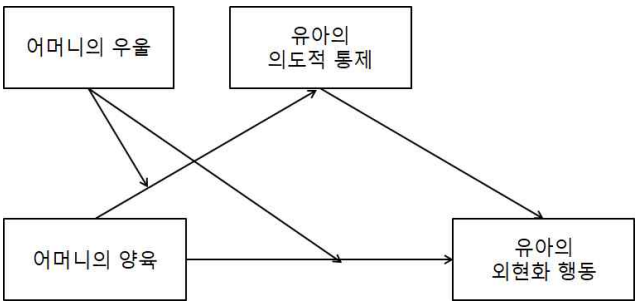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과 부모의 승인을 받은 총 9곳의 원아 4~6세 유아 30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되었다. 연구대상인 유아의 평균 연령은 5.57세(*SD* = .72)로 남아가 157명(52.2%), 여아가 144명(47.8%)가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세(*SD* = 3.28)로 어머니의 63.8%가 4년제 대학 졸업, 16.6%가 대학원 이상 졸업으로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25.2%

로 나타났고, 대부분 취업 상태로(74.8%) 회사원이나 교사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프리랜서가 21.9%로 그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약 635만 원(*SD* = 251.29)으로 나타나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인 451.92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은 박주희(2000)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 중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하위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계설정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문항의 예는 '나는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두고서 반드시 지키게 한다.', '나는 아이가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등이다. 과보호/허용은 아무런 통제 없이 아동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문항의 예는 '나는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해주려고 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지 않는다' 문항을 삭제한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모든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한계설정이 .72, 과보호/허용이 .61로 나타났다. 만 5-6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주희(2000) 연구에서 한계설정이 .74, 과보호/허용이 .6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은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우울증후군을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Radloff, 1977)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우울증 척도(The Center for Epider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전겸구, 이민규, 1992)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의 우울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Likert식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중 4문항에 해당하는 긍정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2로 선행연구(전겸구, 이민규, 1992)의 .89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만 3 - 7세 유아의 기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 행동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CBQ-SF)(Putnam & Rothbart, 2006)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문영경(2014)이 번역・역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의집중(9문항), 억제통제(13문항), 주의 전환(5문항) 등 세 하위요인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은 활동 중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매우 집중해서 한다'이다. 억제통제는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낯선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위험하다고 주의를 들은 장소에 갈 때, 천천히 주의 깊게 접근한다'이다. 주의 전환은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이다. 원척도에서는 7점 Likert 식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조사하여도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근거(Dawes, 2008)에 따라 응답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5점 Likert 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거나 부적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주의집중의 2문항 '부모가 아이에게 말할 때, 때로는 아이가 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와 '시끄러운 소음이 있을 때는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를 삭제한 25문항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4로 선행연구(문영경, 2012)의 .83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유아의 외현화 행동

유아의 외현화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 중 부모가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한국판으로 번역한 척도(오경자, 김영아, 2008)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에 해당하는 공격 행동(19문항)과 주의집중문제(5문항)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Likert식 척도(0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주의집중문제 문항 중 문항 간 상관관계가 부적이거나 낮아 문항 간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인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프다', '이것하다 저것하다 행동이 금방 바뀐다'는 삭제하고 총 22문항 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강지현, 오경자, 2011)의 .89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 (IBM, 2018)과 Process Macro (Hayes, 20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빈도 및 백분율,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외현화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및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매개모형과 두 개의 조절모형이 결합된 8번 모형(Hayes, 2018)의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각각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편추정치를 보완하는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 검증은 임의적인 표본 추출을 5000번 하여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Type 1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높은 검증력의 통계 방법으로 Process Macro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신뢰도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du Prel, Hommel, Röhrig, & Blettner, 2009). 또한, 상호작용의 효과 검증은 평균을 집단을 구분하는 대표값으로 선택하는 자의적인 방법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Johnson-Neyman 통계방법으로 조건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유의성 영역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Hayes, 2018).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과보호/허용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는데(r = - 22, p < .001),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높은 수준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r = .33, p < .001)와 낮은 수준의 외현화 행동(r = -.18, p < .01)과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3, p > .05). 반면에,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 = .12, p < .05), 낮은 수준의 유아 의도적 통제(r = -.21, p < .001)와 높은 수준의 외현화 행동(r = .15, p < .01)과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1, p < .001). 하지만,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나 외현화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각각 rs = -.09, .03, p > .05) 양육행동,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제 3의 변인의 역할을 하는 조절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표 1 참고).

표 1. 조사 변인 간 상관관계 (*N* = 301)

구분	1	2	3	4	5
1. 모의 한계설정 양육	1				
2. 모의 과보호/허용 양육	-.22***	1			
3. 모의 우울	-.03	.12*	1		
4. 유아의 의도적 통제	.33***	-.21***	-.09	1	
5. 유아의 외현화 행동	-.18**	.15**	.03	- .41***	1
평균	3.59	2.20	1.61	3.62	5.79
표준편차	.52	.49	.40	.40	5.65

*p < .05, **p < .01, ***p < .001.

2.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에 대한 우울의 조절효과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Process 모형 8번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 8번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비조건부 과정 분석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비조건부 과정분석을 실시하고, 이 둘의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건부 과정분석(조건부 직접효과: X × W - > Y, 조건부 간접효과: X × W - > M - > Y)으로 검증하였다. 표 2에 각각의 조절된 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림 2에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는 조건부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효과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b = .16, p < .01), 우울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5, p < .01).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3% (p < .01)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높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b = -.02, t = -.19, p > .05), 어머니의 우울이 낮은 경우에 한계설정 양육의 정적인 효과가 드러났다(b = .34, t = 5.82, p < .001). Johnson-Neyman의 유의성 영역 검증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1.71 보다 낮은 집단(전체 집단의 하위 수준 69% 이하)에서만 한계설정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고, 조절된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간접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유아의 외

현화 행동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만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 = -5.56, p < .001).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검증에 의한 조건부 과정분석에서 직접효과(X × W - > Y)는 유의미하지 않고,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여 외현화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X × W - > M - > Y) 간접효과만 어머니의 우울이 평균(M = 1.61, b = -.90, CI [-1.87, -.16])이거나 더 낮은 집단에서(M -1SD = 1.20, b = -1.91, CI [-2.91, -1.12])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2.48(CI [.94, 4.33]로 나타났다.

표 2. 한계설정 양육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과정 모델 분석(conditional process model analysis)

	b	*S.E*	*t*	*P*
매개변인모형 (유아의 의도적통제)				
상수	3.62	.22	157.42	p 〈 .001
한계설정	.16	.05	3.14	p 〈 .01
우울	-.10	.06	-1.80	.07
한계설정 × 우울	-.45	.15	-2.92	p 〈 .01
모형설명력: R^2 = .13 , F = 13.42, p 〈 .001, 상호작용 효과 R^2 = .03, p 〈 .01				
종속변인모형 (유아의 외현화 행동)				
상수	25.95	3.08	8.42	p 〈 .001
한계설정	-.71	.73	-.98	.33
의도적 통제	-5.56	.85	-6.55	p 〈 .001
우울	-1.39	.78	-1.78	.08
한계설정 × 우울	1.14	2.16	.53	.60
모형설명력: R^2 = .18 , F = 14.45, p 〈 .001, 상호작용 효과 R^2 = .00, p 〉 .05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건부 직접효과				
M －1SD (1.20)	-1.17	.88	-2.92	.56
M (1.61)	-.71	.44	-2.14	.72
M ＋1SD (2.02)	-.25	.65	-2.91	2.41
조건부 간접효과				
M －1SD (1.20)	-1.91	.46	-2.91	-1.12
M (1.61)	-.90	.44	-1.87	-.16
M ＋1SD (2.02)	.12	.65	-1.21	1.33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2.48, CI〔.94, 4.33〕				

$^{*}p$ < .05, $^{**}p$ < .01, $^{***}p$ < .001.
Bootstrap 표본수 = 5000. LL = 하한기준, UL = 상한기준, CI =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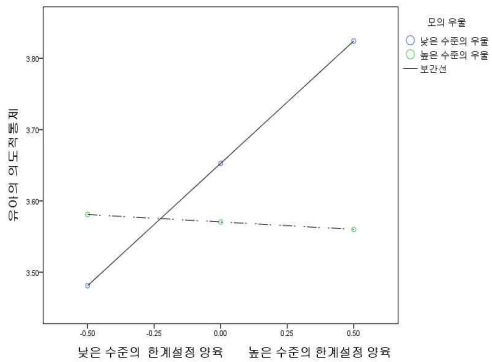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모의 한계설정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

3.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에 대한 우울의 조절효과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효과에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주효과(b = -.16, p < .001)와 우울의 주효과(b = -.11, p < .05)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67, p < .001).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12% (p < .001)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낮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이 낮은 경우에 과보호/허용 양육양육의 부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b = -.43, t = -7.15, p < .001),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과보호/허용 양육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1, t = 1.72, p = .08). 그러나, Johnson-Neyman의 유의성 영역 검증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1.71 보다 낮은 집단(전체 집단의 하위 수준 69% 이하)에서와 2.05보다 높은 집단(전체 집단의 상위수준 15.50% 이상)에서 과보호/허용 양육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고, 조절된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의 우울과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 = -6.15, p < .001),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 = -4.54, p < .001). 먼저, 조건부 과정분석에서 직접효과(X × W - > Y)는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유아의 높은 외현화 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이 낮은 경우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높은 외현화 행동을 예측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났다(b = 3.31, t = 3.58, p < .001).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더라도 우울이 낮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보다는 외현화 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과보호/허용 양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유아의 외현화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부적 효과의 경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b = -1.69, t = -1.87, p = .05). Johnson- Neyman의 유의성 영역 검증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 평균점수가 1.53보다 낮은 집단(전체 집단의 하위수준 50.92% 이하)과 2.04보다 높은 집단(전체 집단의 상위 15.5% 이상)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방법을 통해서 조건부 과정 분석의 직접효과의 유의성 확인하였는데 어머니의 우울점수가 평균보다 -1SD 만큼 낮은 집단에서(M - 1SD = 1.20, b = 3.31, CI [1.49, 5.14])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여 외현화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X × W -> M -> Y) 간접효과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평균(M = 1.61, b = .73, CI [.23, 1.33])이거나 더 낮은 집단에서(M - 1SD = 1.20, b = 1.97, CI [1.09, 3.05])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3.04(CI [.94, 4.33])로 나타났다.

표 3. 과보호/허용 양육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과정 모델 분석(conditional process model analysis)

	b	*S.E*	*t*	*P*
매개변인모형				
(유아의 의도적통제)				
상수	3.61 ***	.02	164.87	p 〈 .001
과보호/허용	-.16 ***	.05	-3.55	p 〈 .001
우울	-.11 *	.05	-2.05	p 〈 .05
과보호/허용×우울	.67 ***	.11	6.36	p 〈 .001
모형설명력: R^2 = .19 , F = 20.87, p 〈 .001, 상호작용 설명력: R^2 = .12, p 〈 .001				
종속변인모형				
(유아의 외현화 행동)				
상수	22.35 ***	3.11	7.19	p 〈 .001
과보호/허용	.81	.65	1.24	.21
의도적 통제	-4.54 ***	.86	-5.30	p 〈 .001
우울	-1.30	.76	-1.71	.09
과보호/허용×우울	-6.15 ***	1.58	-3.90	p 〈 .001
모형설명력: R^2 = .22 , F = 18.84, p 〈 .001, 상호작용 설명력: R^2 = .04, p 〈 .001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건부 직접효과				
M -1SD (1.20)	**3.31**	.93	1.49	5.14
M (1.61)	.81	.65	-.47	2.09
M +1SD (2.02)	-1.69	.90	-3.47	.09
조건부 간접효과				
M -1SD (1.20)	**1.97**	.50	1.09	3.05
M (1.61)	**.73**	.28	.23	1.33
M +1SD (2.02)	-.50	.40	-1.43	.13
조절된 매개효과: -3.04 CI[-4.97, -1.61]				

*p < .05, **p < .01, ***p < .001.
Bootstrap 표본수 = 5000. LL = 하한 UL = 상한기준, CI =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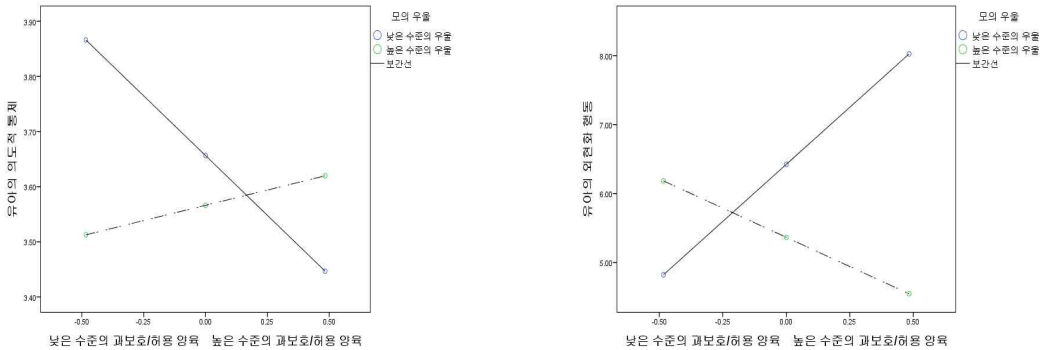

그림 3.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모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만 4-6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이라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통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많은 부모가 지키기 어려워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육방식이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아기(Horwitz et al., 2009)에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그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영향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현상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은 유아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예측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효과가 드러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한계설정 양육과 크게 상관없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 어머니가 한계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오히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았고, 한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들이 불안이나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 다양한 양육 상황에 대해 즉흥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조현주 등, 2007) 일관성

과 관련이 깊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실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형성하는 양육은 유아가 의도적 통제를 발달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의 우울감이 없을 때 한계설정 양육의 효과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우선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우울증상이 없는 일반 어머니의 경우에 되도록 자녀에게 한계설정 양육을 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우울에 의한 외현화 행동에 대한 조절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만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 - 5세 유아를 둔 3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우애리, 2014)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보다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한 매개적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온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정리해 보면, 어머니가 우울 수준이 낮고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환경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 촉진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행동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규칙을 알려주고 자녀에게 설명하며 규칙을 상기시켜주는 유도적인 훈육으로 양육할 때 유아의 의도적 통제발달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외현화 행동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심리적 괴로움이 낮을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oe, Olson & Sameroff, 2013)와 일맥상통한다. 부모교육 현장에서 어머니가 한계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부모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계설정 양육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고 외현화 행동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한계설정 양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통제하지 않는 과보호/허용 양육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다. 특히,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과보호/허용 양육의 효과를 민감하게 변화시켰다. 즉,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롭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과보호/허용 양육의 부정적인 효과가 반전되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 향상을 오히려 반대로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거나, 반응해주지 않고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 쉽다는 선행연구(문경주, 오경자, 1995; Downey & Coyne, 1990; Field, Diego, & Hernandez-Rief, 2009; Lovejoy et al., 2000)를 고려했을 때,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과보호/허용

양육이라도 해주는 것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울감이 심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라도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제안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해 반복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과 유사한 맥락으로, 우울 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과보호/허용 양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 수준은 높아졌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민감하게 두드러져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과보호/허용 양육이 오히려 유아의 외현화 행동을 낮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이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Aunola, & Nurmi, 2005; Grolnick, & Farkas, 2008; Rinaldi, & Howe, 2012), 의도적 통제 능력을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에게 우울이 낮고 없는 경우에 일맥상통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Chang et al., 2011; Gartstein & Fagot, 2003). 그렇지만,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높은 경우에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의 자녀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에는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맥락 특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의 횟수를 늘리도록 하고, 관심을 더 가지도록 부모를 조언하는 방향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을 때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을 줄이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은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을 때 의도적 통제를 저해하고 외현화 행동을 높이기도 하고, 의도적 통제와 별도로 그 자체로 외현화 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은 어머니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고 외현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서 같은 양육행동이어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에 부모교육을 하거나 부모상담을 할 때 부모의 우울 상태를 점검하고, 부모양육 중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수집이 비교적 중상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위험집단 등의 다양한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결과의 인과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자녀의 출생시기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통제하여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모형으로 반복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설정이나 과보호/허용이라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양

육행동의 역할을 조사하였다는 점과 부모의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그 메커니즘이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유아의 외현화 행동을 줄이고,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부모상담을 할 때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고려하는 개별적 접근을 돕고, 과보호/허용과 한계설정 등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김명숙, 오현숙 (2015).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13-530.

김효정, 이희선 (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doi:10.12812/ksms.2013.15.4.113

문경주, 오경자 (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모자 상호작용 관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문영경 (2014).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생활과학회지**, **23**(1), 15-29. doi:10.5934/kjhe.2014.23.1.15

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 (2019).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1), 1-19. doi:10.1764/KAPT.22.1.1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 행동평가척도-부모용 매뉴얼**. 서울: ㈜ 휴노컨설팅.

우애리 (201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화, 김지현, 임소연, 채명옥, 이혜림, 오진아 (2014).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237-246. doi:10.4094/chnr.2014.20.4.237

전겸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조현주, 전태연, 채정호, 우영섭, 최정은, 기백석, 임현우 (2007). 우울장애의 불안, 신체화, 분노 증상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6**(3), 663-679.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A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rty.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doi:10.1111/j.1467-8624.2005.00840.x-i1

Carter, A. S., Garrity-Rokous, F. E., Chazan-Cohen, R., Little, C., & Briggs-Gowan, M. J. (2001). Maternal depression and comorbidity: Predicting early parenting, attachment security, and toddler social-emotional problems and compet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 18-26. doi:10.1097/00004583-200101000-00012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doi:10.1007/s10802-010-9437-7

Choe, D. E., Olson, S. L., & Sameroff, A. J. (2013). Effects of early maternal distress and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437-453. doi:10.1017/S0954579412001162

Chronis, A. M., Lahey, B. B., Pelham Jr, W. E., Williams, S. H., Baumann, B. L., Kipp, H et al.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ositive parenting predict future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70-82. doi:10.1037/0012-1649.43.1.70

Cummings, E. M., & Davies, P. T. (1999). Depressed parents and family functioning: Interpersonal effects and children's functioning and development. In T. Joiner & J. 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pp. 299-32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ummings, E. M., Keller, P. S., & Davis, P. T. (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479-489. doi:10.111/j.1469-7610.2004.00368.x

Dawes, J. (2008). Do data characteristics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cale points used? An experiment using 5-point, 7-point and 10-point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0*(1), 61-104. doi:10.1177/147078530805000106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doi:10.1037/0033-2909.108.1.50

Du Prel, J. B., Hommel, G., Röhrig, B., & Blettner, M. (2009). Confidence interval or p-value?: part 4 of a series on evaluation of scientific publications. *Deutsches Ärzteblatt International, 106*(19), 335-339. doi:10.3238/arztebl.2009.0335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L., Liew, J., Zhou, Q., Losoya, S. H., et al.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uu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doi:10.1037/a0016213

Elgar, F. J., McGrath, P. J., Waschbusch, D. A., Stewart, S. H., & Curtis, L. J. (2004). Mutual influences o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adjustment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4) 441-459. doi:10.1016/j.cpr.2004.02.002

Field, T., Diego, M., & Hernandez-Rief, M. (2009). Depressed mothers' infants are less responsive to faces and voic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2(3)*, 239-244. doi:10.1016/j.infbeh.2009.03.005

Gardner, F., Hutchings, J., Bywater, T., & Whitaker, C. (2010). Who benefits and how does it work? Moderators and mediators of outcome in an effectivenss trial of a parenting interven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4), 568-580. doi:10.1080/15374416.2010.48315

Gartstein, M. A., & Fagot, B. I. (2003).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and family adjustm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Explaining externalizing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43-177. doi:10.1016/S0193-3973(03)00043-1

Grolnick, W. S., & Farkas, M.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 regulatio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89-1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Hoffman, C., Crnic, K. A., & Baker, J. K.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ergent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al functioning. *Parenting:Science and Practice, 6*(4), 271-295. doi:10.1207/s15327922par0604_1

Horwitz, S. M., Briggs-Gowan, M. J., Storfer-Isser, A., & Carter, A. S. (2009). Persistence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throughout the early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Women's Health, 18*(5), 637-645. doi:10.1089/jwh.2008.1229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ç, M. (2009). Predicting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Interactions among effortful control, parenting, and child gender. *Merrill-Palmer Quarterly, 55*(2), 111-134. doi:10.1353/mpq.0.0020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doi:10.1037/0012-1649.36.2.220

Lengua, L. J. (2002).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144-161. doi:10.1111/1467-8624.00397

Lengua, L. J., Honorado, E., & Bush, N. R. (2007). Contextual risk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40-55. doi:10.1016/j.appdev.2006.10.001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doi:10.1016/S0272-7358(98)00100-7

Mellick, W., Sharp, C., & Wilkinson, A. (2017). The moderating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maternal critical expressed emo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8*(4), 546-553. doi:10.1007/s10578-016-0680-1

Middleton, M., Scott, S. L., & Renk, K. (2009).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behaviours,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4), 323-336. doi:10.1002/icd.598

Olson, S. L., Bates, J. E., Sandy, J. M., & Schilling, E. M. (2002). Early developmental precursors of impulsive and inattentive behavior: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35-447. doi:10.1111/1469-7610.00035

Posner, M. I., & Rothbart, M. K. (2005). Influenting brain networks: Implications for educa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9*(3), 99-103. doi:10.1016/j.tics.2005.01.007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2-112. doi:10.1207/s15327752 jpa8701_09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doi:10.1016/j.ecresq.2011.08.001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10.1177/014662167700100306

Smith, C. L., & Day, K. L. (2018). Parenting, anger, and effortful control as predictors of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The role of child sex as a mod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2*(2), 248-256. doi:10.1177/0165025417692898

Topham, G. L., Page, M. C., Hubbs-Tait, L., Rutledge, J. M., Kennedy, T. S., Shriver, L., & Harrist, A. W. (2010). Maternal depression and socio-economic status moderate the parenting style/child obesity association. *Public Health Nutrition, 13*(8), 1237-1244. doi:10.1017/S1368980009992163

Valiente, C., Eisenberg, N., Smith, C. L., Reiser, M., Fabes, R. A., Losoya, S,. et al. (2003).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reactive control to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A longitudinal asse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71-1196. doi:10.1111/1467-6494.7106011

Zhou, Q., Hofer, C., Eisenberg, N., Reiser, M., Spinrad, T. L., & Fabes, R. A. (200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ttention focusing attentional and behavioral persist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school-age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369-385. doi:10.1037/0012-1649.43.2.369

논 문 투 고 : 20. 02.15
수정원고접수 : 20.05.23
최종게재결정 : 20.06.16